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와 향후 과제

손승호·국별조사실 선임연구원

I. 머리말	III.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II.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IV. 향후 과제

I. 머리말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가인 베트남은 1975년 이후 전쟁 후유증, 비효율적인 경제운용, 서방제국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1979년 말부터 계획경제하의 부분적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신경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개혁정책인 도이머이(刷新) 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국인투자법 제정, 재정금융개혁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물가안정, 재정적자 축소, 외국인투자 증대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연평균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베트남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200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5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베트남이 이러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자본이 필요하였는데 국내 투자자본이 부족한 베트남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¹⁾ 유치를 통한 투자 자원 조달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한 투자자본 조달이 총투자의 30.5%까지 이르는 등 성장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베트남 경제의 GDP, 산업생산, 수출, 재정수입, 고용, 기술이전 등에 미친 영향을 보면 기대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과 베트남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부문별로 살펴보고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요인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과제들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자본, 기술, 경영노하우 등)를 해외현지로 이전시켜 현지의 생산요소(토지, 노동 등)와 결합하여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한 기업 활동의 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음. 최백렬, '해외투자론', 대경, 2004.8. p. 9.

II.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베트남 시장의 특징

베트남의 개방정책 실시 이후 베트남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양질의 저임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 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도 커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주변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상당수의 월남 난민들이 홍콩, 호주, 미국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해외교포들 및 그 자녀들의 국내 귀환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로서는 외국에서 유학한 고급 노동력 유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등 적극적인 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는 정치적 안정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총서기장, 총리, 대통령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 세력이 미약해 상당 기간동안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공업화 정책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베트남이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는 것이다. 베트남의 석유생산은 1986년 Vietsovpetro사가 Bach Ho 유전의 생산을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신규 유전의 발굴과 생산시설의 확충으로 베트남의 석유 생산량은 1986년 평균 일산 800배럴에서 2002년에는 25만 8,000배럴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일산 36만 9,000배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의 수출도 증가하여 2003년에는 석유 수출이 총수출의 19%를 차지하며 제1위의 수출품목으로 등장하였다. 가스는 2002년까지 Tien Hai와 Bach Ho 유전에서 생산해왔으나 2002년 후반부터 BP사가 운영하는 Lan Tay/Lan Do 가스프로젝트가 생산을 시작하여 2003년 가스 생산량도 일산 2.5억 입방피트에 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10~15년 안에 베트남의 생산량이 일산 약 6억 5,000만 입방피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

베트남 시장의 이러한 특징들은 베트남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관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미정착, 미약한 법률체계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에게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게 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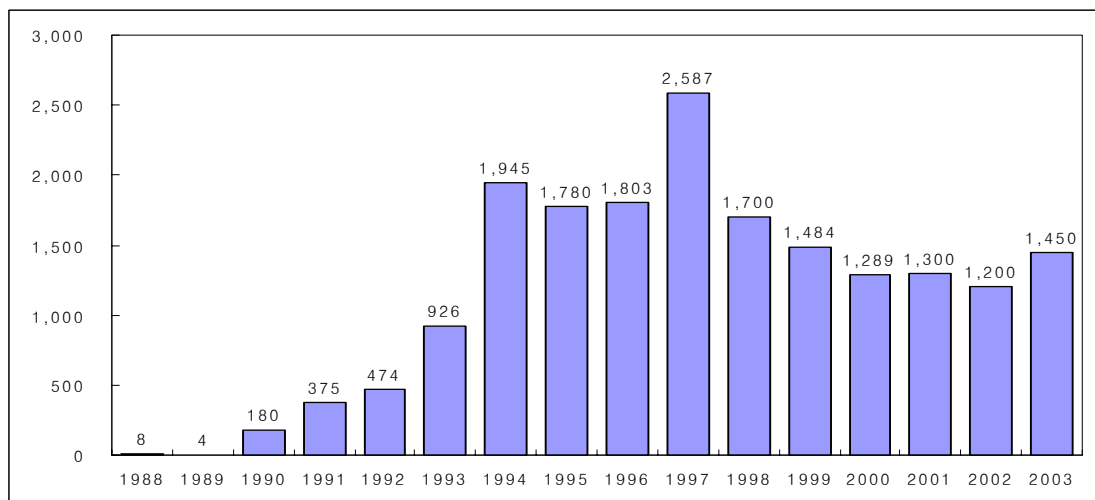
2.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외국인직접투자 통계가 파악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최근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3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1994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주로 석유 및 가스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석유 부문에의 투자를 통한 석유 수출은 동 기간중의 수출 증대에 주요인이 되었다. 1994년 이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부동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1997~98년 기간중의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전까지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임금을 찾아 해외투자를 크게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중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투자재원조달 역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을 통해 베트남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림 1>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http://stats.unctad.org/fdi/>

2) Wood McKenzie, South East Asia Upstream Services, 2003.

1998년 이후에는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베트남 투자가 급감하였으며 특히 부동산 부문에의 투자 감소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또한 1998년 이후의 투자 유입액 감소에는 베트남의 국내 정치적 환경도 영향을 미쳤는데 베트남 국내적으로 그동안의 개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제 개혁정책의 추진이 지체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후 외국인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베트남은 2001년의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개혁주의자인 Nong Duc Manh을 총서기장으로 선출하고 신회사법 채택, 외국인투자 관련법 개정,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년 2월초 하노이에서 개최된 공산당 창립 75주년 행사에서 Manh 총서기장이 베트남 통일 이후 야기된 일련의 경제적 위기에 공산당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공산당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함에 따라 사회적 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외국인직접 투자 유입액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가별 투자 현황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유입현황을 보면 2004년말 승인액 누계 기준으로 보면 총 5,110건에 458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유입액은 26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 투자현황을 보면 싱가포르가 제1위로 334건에 투자 승인 규모가 80억 달러에 이르고 실제 유입액도 34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후 대만, 일본에 이어 한국이 840건에 29억 달러의 투자 유입으로 제4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1>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주)}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건수	승인액	유입액	국 가	건수	승인액	유입액
싱가포르	334	7,982.94	3,381.14	네덜란드	53	1,835.26	1,974.73
대 만	1,259	7,258.37	3,145.84	태 국	116	1,384.85	756.77
일 본	490	5,386.89	4,253.31	말레이시아	163	1,319.00	811.44
한 국	840	4,751.74	2,888.83	미 국	215	1,281.28	729.93
홍 콩	326	3,228.23	1,941.83	영 국	62	1,217.53	600.24
B.V.Islands	212	2,430.42	1,141.28	기 타	898	5,536.64	4,898.11
프 랑 스	142	2,153.11	1,060.72	합계	5,110	45,766.26	26,772.73

주) 2004년 12월말, 누계기준임.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2005. 2. 21-27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 유입액은 6.3%로 매우 적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25%에 이르나 서비스업 투자의 대부분이 호텔의 건설 및 운영 등 관광 부문에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경공업 부문에의 투자가 금액면에서 전체 유입액의 12.6%에 불과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베트남에서 고용 창출을 많이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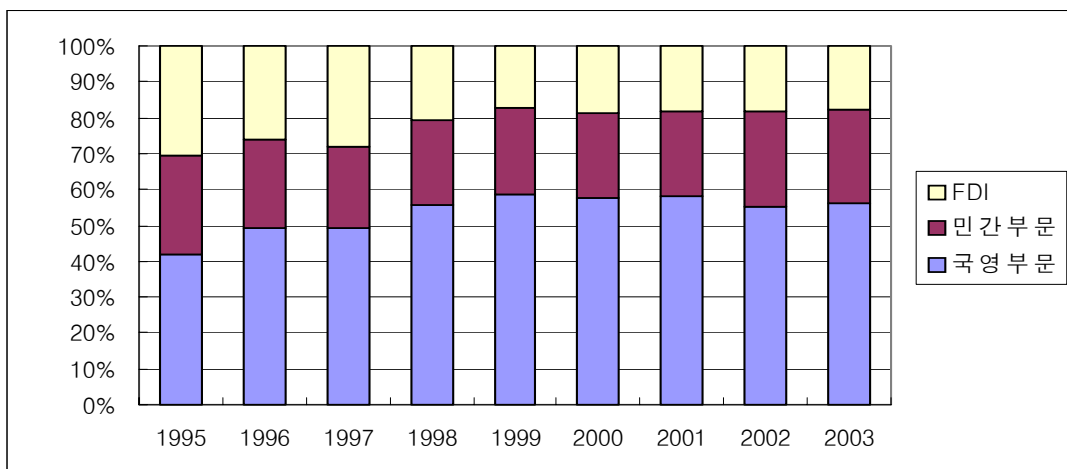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투자 허가를 얻은 후 실제 투자를 한 비율이 58%에 불과한 것도 유의할 부분이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투자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현지 법인 설립, 공장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베트남의 관료주의로 인한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 불명확한 법률체계,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하거나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Ⅲ.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개요

개발도상국에 있어 국제투자자본의 유입은 경제성장 및 후생 증대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다른 자본 투자에 비해 투자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있어 경제개발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2> 투자주체별 구성 추이



자료 : GSO, Statistical yearbook 2003.

이들 국가들은 자국에 외국인직접투자를 가능한 한 많이 유치하는 것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본, 노하우 등의 이전을 통해 자국 경제를 세계경제에 편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도 1987년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에 들어 베트남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자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총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30.4%로 정점에 이른 후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에는 17.5%에 그치고 있다.

2. 부문별 경제적 효과³⁾

가. GDP 증대 효과

아시아 외환위기이후 총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GDP 증대에 미친 영향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GDP 기여율이 1995년의 6.3%에서 2000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13.3%를 기록하였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특히 산업생산, 수출, 정부 재정 수입 부문의 증대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1990년대 초까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의한 산업생산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5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전체 산업생산의 35%를 차지하며 국영부문 투자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5년 이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광산부문이 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여타 부분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2000년에는 그 비율이 32%로 낮아졌다.

<표 3> 외국인직접투자의 GDP 및 수출에 미친 효과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GDP기여율(%)	6.3	7.4	9.0	10.0	12.3	13.3
수출기여율(%)	8.1	10.8	19.5	21.2	22.4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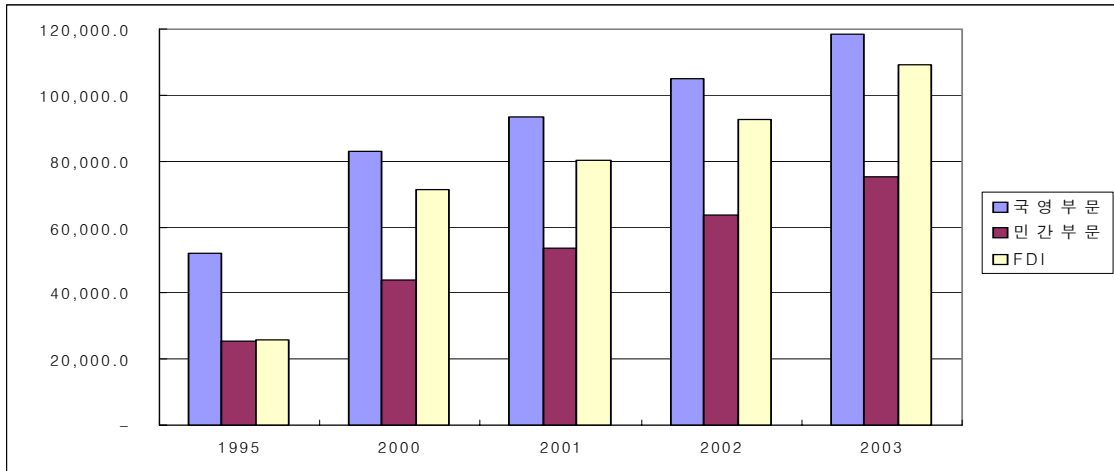
자료 : www.mpi.gov.vn

3) ADB, Vietnam: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ostcrisis Regional Integration, Sept. 2004. p. 9-15를 주로 요약 정리한 내용임.

<그림 3>

부문별 산업 생산액 추이

단위 : 10억 동^{주)}



주 : 2004년말 기준 1달러=15,740동(Dong)임.

자료 : GSO, Statistical yearbook 2003.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아시아 외환위기이후 베트남의 수출증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1997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수출기여율이 전년대비 80% 이상 증가하여 당해년도 총수출의 20%를 점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수출기여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2년중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수출은 주로 전기제품, 신발, 의류 및 직물류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기제품 수출의 82%, 신발 수출의 42%, 의류 및 직물류 수출의 25%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대베트남 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통한 베트남의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통한 수출 촉진 효과도 가져왔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는 정부 재정수입도 증대시켰는데 1997~2000년 기간 중 정부 예산의 5.7%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정부 수입을 감안하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정부재정수입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 고용창출 효과

고용창출은 외국인직접투자가 베트남 경제에 미친 영향중 중요한 부문중의 하나로서 당초 베트남 정부의 기대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증대에 미친 영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가 GDP, 투자, 수출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베트남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2%에 불과하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의한 고용이 전체 노동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부문별로 보면 공업 및 건설업이 6.4%, 서비스업이 0.4%, 농업이 0.2%로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부문에서 고용 창출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2000년 이후에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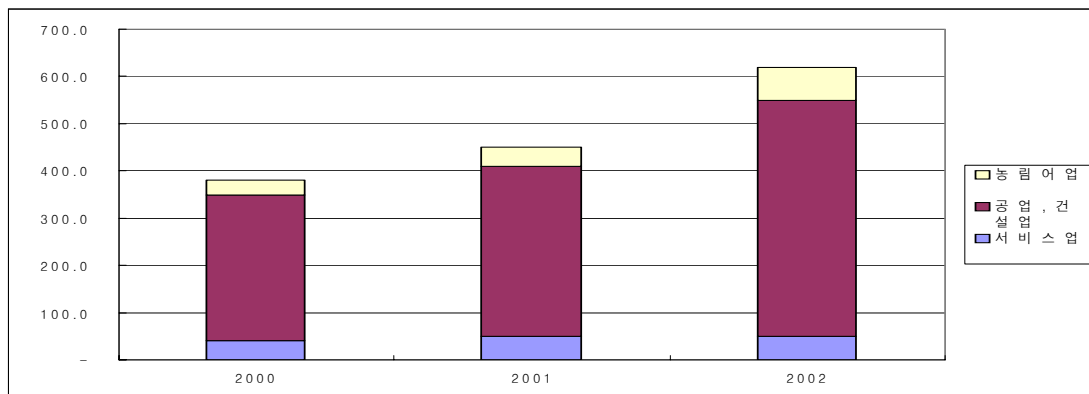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서 고용창출이 많지 않은 것은 첫째,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고 생산과정에서 더 앞선 기술을 사용하며 생산제품 원부자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IMF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총매출액중 수입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에는 74%, 2000년에는 82%에 이르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베트남내 생산공정이 부품의 생산, 조립 등이 아니라 대부분 최종 단계의 생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이는 낮은 고용 창출 효과로 연결된다.

우리기업의 예를 들면 주요 가전회사의 경우 가전 완제품은 높은 관세로 베트남 수출이 어려우므로 베트남 인접국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일부 분해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재조립 생산하는 사례도 있다.

둘째, 부문별 외국인직접투자를 보면 전체 투자 유입액의 50%가량이 자동차, 오토바이, 철강, 시멘트, 자원개발, 호텔 등의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림 4> 외국인직접투자의 부문별 고용 창출

단위 : 천 명



자료 : ADB, Vietnam: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ostcrisis Regional Integration, Sept. 2004.

2004년 말 잔존기준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부문별 비율을 보면 중공업부문 24.6%, 석유 및 가스 부문 16.6%, 호텔 및 관광 부문 8.2% 등 자본집약적 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전체 고용의 2/3와 GDP의 25%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5.8%에 불과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농업부문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창출한 고용을 부문별로 보면 2001년 기준 공업 부문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운송이 13%, 농림어업은 10%에 불과하다. 2002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 65만 개중 공업부문이 83%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업 및 서비스업은 각각 10%, 7%에 불과하다. 공업부문에서는 의류, 직물, 신발, 기타 소비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공업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다. 기술이전 및 교육 훈련 효과

지난 15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투자 자본뿐만 아니라 관리 능력과 기술의 유입도 가져왔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은 베트남 기술보다 크게 앞선 것들이며 특히 석유 및 가스, 통신, 화학,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 앞선 기술들이 도입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합작기업 또는 사업협력계약(BCC)⁴⁾의 경우에 이러한 신 기술들의 이전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술 이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베트남내 대부분의 기업, 특히 국영기업들이 시장경제체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도 베트남으로 기술이전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내 연구 개발 기능과 생산부분과의 연계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즉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베트남 경제개발과 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베트남 국내기업간의 낮은 연계성,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민간기업의 미발달 등으로 그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IT 등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기술이전의 효과⁵⁾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기업들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부터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4)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은 베트남내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단지 쌍방간의 사업계약에 의거,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투자형태이며 별도의 법인설립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의 무한 책임을 짐.

5) 기술이전은 ① 합작기업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베트남 파트너기업간, ② 합작기업으로부터 여타 베트남내 기관 및 기업, ③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베트남내 기업 등의 형태로 나타남.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는 베트남 기업의 중간 관리자들을 교육, 훈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의해 30만 명의 일반 근로자, 2만 5,000명의 기술자, 6,000명의 관리자 등이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

라. 지역별 불균형 발전

베트남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특징중의 하나는 도이머이 정책 이후 전체적인 빈곤이 다소 감소되고 여타 개도국에 비해 개방정책 초기의 소득불균형이 비교적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 상황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74%가 베트남 전체 인구의 15%만이 거주하고 있는 5개의 도시⁷⁾에 집중되어 있어 인구의 85%가 거주하는 여타 56개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자원개발이나 관광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투자 대상 지역으로 대규모 시장이 존재하고 제반 사회간접자본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주)}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건수	승인액	유입액	구분	건수	승인액	유입액
호치민시(HCMC)	1,590	11,517.83	6,077.65	Thanh Hoa	15	696.69	411.09
Hanoi	549	8,019.45	3,702.27	Long An	85	626.18	306.38
Dong Nai	608	7,528.41	3,613.08	Vinh Phuc	73	593.47	442.94
Binh Duong	902	4,241.04	1,766.84	Hai Duong	66	591.63	367.51
BaRia-VungTau	108	2,132.39	1,397.93	기타	856	5,248.39	2,868.41
Haiphong	164	1,790.72	1,252.20	석유 및 가스	27	1,898.08	4,434.73
Lam Dong	67	881.98	131.70	합계	5,110	45,766.26	26,772.73

주) 2004년 12월말, 누계기준임.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2005. 2. 21-27

6) Doanh, L. 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Vietnam: Results, Achievements, Challenges and Prospects", August, 2002, ADB, p. 15. 에서 재인용

7) 베트남의 전체 도시인구 비율이 25%에 불과하며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5개 도시는 HCMC, Hanoi, Dong Nai, Binh Duong, Ba Ria-Vung Tau 등임.

따라서 대다수의 빈민들이 거주하는 지방(농촌) 지역의 투자와 성장은 대부분 국영부문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북부 해안지역과 중부 산악지대에 대한 투자중 국영부문이 85%이며 북부지역 투자의 79%를 국영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즉 베트남 국영부문의 투자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으며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대도시 지역에 더욱 집중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최근 베트남 정부는 의도적으로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반 투자 인센티브의 제공, 조건부 투자 허가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북부지역에 우선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 민간부문의 상대적 위축

개방정책 실시 이후 민간부문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와 고용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림 2>에서 보면 총투자중 국영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2%에서 2001년에는 58.1%로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27.6%에서 23.6%로 감소하였다. 이는 베트남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비추어 볼 때 민간 투자의 위축은 다소 의외이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등록 사업자와 영세업자 및 가내 수공업 등으로 인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 정부가 경제 개발을 위해 국내 투자 보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선호하여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민간기업이 국영기업에 비해 불리한 것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시 분명하게 나타나는 데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은 합작투자시 베트남내 행정절차 해결을 위해 국영기업을 선호하게 되며 국영기업에게 허용되는 토지사용권의 자본 출자도 민간기업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베트남 민간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되어야 하고, 민간기업에게도 토지사용권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출자, 담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이 확대, 심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시장이 리스크와 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 원리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향후 과제

1. 외국인투자제도 개선

베트남은 대외개방개혁정책을 선언한 제6차 공산당 전당 대회 이후인 1987년 12월, 첫 번째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다. 외국인투자법의 제정은 베트남 경제가 기존의 중앙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베트남식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987년 이후 외국인투자법 및 그 시행령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더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외환규정의 완화, 투자형태의 전환요건 완화, 과실송금세 인하 등 많은 투자 장애 요인들이 해소되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었고 합작기업에 있어 토지내 원주민의 이주를 포함하는 토지 정리 작업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책임에서 베트남측 파트너의 책임으로 변경되었으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 설립회사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이후에는 일정금액 이하의 외국인직접투자 인허가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어 각 지방정부가 더 좋은 세제 조건, 과실송금세, 토지사용권 등으로 다른 지방정부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표 5> 동남아 8개 도시 투자 관련 비용 비교

단위 : 미 달러

비용 \ 시	호치민시	하노이	북경	방콕	싱가포르	자카르타	마닐라	쿠알라룸푸
사무실 임대료 (월, m ² 당)	21	24	30-60	11,03	40,64	14-20	4.52-7.23	9.92-17.68
전기요금(KW당)	0.05-0.07	0.05-0.07	0.03-0.09	0.04	0.07	0.05	0.09	0.05
Yokohama항까지 해상운송비용	900	1,300	500	1,200	575	890	850-1,100	575
최고개인소득세율	50%	50%	45%	37%	22%	35%	32%	28%
노동자 평균임금(월)	102-138	79-119	79-139	184	432-557	133	170	202

자료 : Saigon Giaiphong, 2004. 6. 23.

이러한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게는 지분출자 방법, 투자 재원 조달 방안 등 여전히 많은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 중의 하나가 합작기업 및 100% 단독투자법인의 법정자본금이 총투자금액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합작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분이 30% 이상⁸⁾이 되어야 하며, 베트남의 주요 교통수단의 하나인 오토바이 사업에는 높은 현지 부품조달 비율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해당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병행되고 있다. 과도한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은 베트남 국내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하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현지 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과 M&A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투자가 허가된 35개 부문에 속한 베트남 기업 주식의 30%까지 취득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수상실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통신 및 항만 사용료 등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중가격제도 등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위한 인국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개방정책 실시이후 계속되는 상품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해 왔으며 이는 동 부문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합작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수입대체 산업 부문에 대해 높은 수입관세를 책정함으로써 베트남 국내 시장이 수출 시장에 비해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어 수출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997년 이후에는 베트남의 고관세율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여 내수 시장의 관세는 크게 낮아졌으나 주요 수출품의 보호는 더욱 강화되었다. 현재 베트남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높으나 베트남의 ASEAN 가입과 AFTA의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2006년까지 역내국가에 대해 모든 제조업 제품의 관세율을 0~5%까지 인하해야 하므로 관세인하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여건이 외국인직접투자에게 합리적이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법률제도의 개선, 국영기업의 개혁, 부정부패 척결, 민간부문 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금융 및 대출 제도 개선 등에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부문별 개혁과제

8) 운전 및 기술제공, 베트남 경제에의 기여도에 따라 20%로 감소될 수도 있음.

가. 법률제도 개선

베트남 법률은 조세, 외환, 노동, 토지 등 여러 부문에서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일관되지 않게 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중앙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 경우 그동안 없던 새로운 법률체계를 만들어야 하나 베트남내에서는 이러한 법률제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나 기관이 없어 베트남 법률체계가 취약한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재산권 관련 법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재산권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담보제도 및 강제집행 관련 제반 시행령 등이 완비되어야 하며, 이는 베트남내 금융기관들이 대출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베트남 자본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현재 베트남 민법 및 기업법 등에서 재산권의 강제집행 제도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담보물의 처분 및 강제회수 시행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시에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에 소극적으로 되고, 베트남 기업 입장에서는 보유 자산을 담보로 하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나. 국영부문 개혁

베트남은 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생산요소 시장 및 자본시장 등 시장경제체제의 주축을 이루는 조건들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베트남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급격한 가격자유화와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쇼크 요법(shock therapy)보다는 주로 국영기업의 경영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시장 경쟁체제의 조성, 기업보조금 중단, 국영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 즉,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와 보조금의 폐지를 통해 국가의 세출 부담을 줄였으며 국영기업에게는 금융기관 대출, 노동자의 고용, 임금 결정,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정부의 힘을 이용하여 국영은행으로부터 투자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며 시장경쟁도 가급적 회피하였다.

베트남의 국영기업 개혁은 3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국영기업개혁

이 본격화 된 1991년에 국영기업의 자산을 재평가하고 경영상태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만 국영기업으로 재등록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1989년 12,297개에 달하던 국영기업이 1994년에는 6,264개로 그리고 2003년에는 4,704개로 축소되었다. 둘째, 비전략적인 기업들을 주식화(equitization)하여 근로자에게 주식매입 우선권을 주며 내국인들은 총 자본금의 15% 이내, 외국인은 30%이내에서 주식 매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관련 국영기업을 통합하여 대기기업집단(GC)⁹⁾으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 민영화 실적은 산출액 기준으로 하면 전체 국영기업 산출액의 8%만이 민영화 된 것으로 나타나 국영기업 민영화가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이처럼 민영화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로는 국영기업의 기관장들은 자리 보전을 위해 그리고 근로자들도 실업에 대한 우려로 민영화에 소극적인 점, 베트남 증권시장 미발달로 상장이 어려운 점,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30%로 제한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베트남 공업부문의 대부분이 비효율적인 국영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영기업의 적자를 정부 재정이나 국영은행의 대출로 구제해 주고 있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건전한 투자자가 더 효율적인 부문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구축하는 효과(crowding out effect)를 가져와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정치적 이유로도 지체되고 있는데 이들은 자본주의적 민영화가 국가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 부정부패의 척결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베트남 투자 및 기업경영에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베트남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베트남내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적발된 부정부패 사례들을 보면 국가재산의 횡령, 밀수, 불법상품의 교역, 세금

9)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국영기업의 절반을 GC(General Corporations)로 알려지고 있는 18개의 거대지주회사로 통합하였음. 그 목적은 유사한 기업 사이의 무분별한 경쟁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정부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음. 그러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많은 기업을 단일 지주회사 내에 묶어 둠에 따라 오히려 독점력 행사를 통해 지대를 추구하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GC 속에 있는 개별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생산관련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저해하였으며, 개별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 사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구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음.

사기, 뇌물 수수 등의 형태를 띠었으나 최근에는 예산 및 소득관련 법규의 위반, 합작기업의 남용, 예산의 불법적 전용, 부동산 및 건설에 관한 정부규제 위반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들이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내 부정부패가 만연한 데에는 구조적인 원인도 있는데 우선 공산당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무역업무 허용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전체 국영기업의 약 70%가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문제에 대해 베트남 공산당도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는 정실 인사 관행이다. 이는 내부 고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부패 관료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다. 셋째, 경제개혁과정에서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절차법들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아 관료들의 재량권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경미하고 불공정한 법 집행 등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공무원 및 국영기업 간부의 부정부패 만연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금년들어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반부패 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국회도 국가감사원의 설립을 승인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미지수이다.

3. 맺음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는 베트남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총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주요 투자 재원조달 역할을 하여 개방정책 실시 이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수출 증대를 통해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주로 자본집약적인 부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제한적이었으며 기술이전 효과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제품 의무 사용비율 부여에도 불구하고 크지 않았다. 이는 주로 베트남내 기업들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제반 기술, 관리 능력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 형성된 베트남 기업들에게 새로운 개념 및 생산기술의 도입과 기술 및 노하우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였다.

향후 베트남이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개발과 사회개혁을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제반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시 합작기업 및 100% 단독투자법인의 법정자본금이 총투자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 것과 합작투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 것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산권 관련 법령들을 포함하여 시장경제체제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법률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국영기업의 민영화 실적을 보면 국영기업의 수는 개혁 초기에 비해 38%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국영기업의 8%에 그치는 등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기업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금융 개혁, 민간부문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제반 경제 개혁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더 적극적인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베트남 투자환경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베트남이 시장경제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영기업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의 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동서문제연구원, 「베트남의 법제도와 시장개혁」, 2002. 4.
2. 한국베트남학회, 「한국학과 베트남학 연구의 현향과 과제」, 2004. 10. 2.
3. 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의 국가현황과 우리의 진출방안」, 2004. 9.
4. _____, 「베트남의 주요 에너지 산업동향과 개발전망」, 2003. 12.
5. _____, 「베트남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집」, 1997. 12.
6. Doanh, L. 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Vietnam: Results, Achievements, Challenges and Prospects“, August, 2002
7. ADB, Vietnam: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ostcrisis Regional Integration, Sept. 2004.
8. MUTRAP, The FACTOM model: FDI attraction Comparison and Trade Openness Measure, EC, Vietnam, 2002
9. Wood McKenzie, South East Asia Upstream Services, 2003.
10. GSO(베트남 통계국), Statistical yearbook 2003.
11. Saigon Giaiphong, 2004. 6. 23.
12. Vietnam Investment Review. 2005. 2. 21-27
13. www.eiu.com
14. www.stats.unctad.org/fdi/
15. www.kita.net
16. www.mpi.gov.vn
17. www.viewswire.com
18. www.vir.com.vn
19. www.worldmarketsanalysis.com